

과정 속에 담긴 은혜

소그룹 나눔 자료 · 사사기 11:1-40

본문

사사기 11:1-40

설교 핵심 요약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집에 돌아올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결국 그 대상은 자신의 무남독녀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는 가나안 우상 그모스와 물렉을 섬기던 인신 제사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가고 동행하는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눔

1. 여는 질문

1. 열심히 준비한 일이 좋은 결과로 끝났는데, 돌아보니 그 과정에서 편법이나 무리한 방법을 썼던 적이 있다면 가볍게 나눠주세요.
2. 입다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서원할 때는 우상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2. 말씀 나눔

1. 입다가 서원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온 그를 실제로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2. 입다가 옷을 찢으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장면은 서원을 지키려는 충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과정이 낳은 비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왜 이 본문의 의도가 '서원은 반드시 값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바울은 질병 치유라는 결과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뻐했습니다. 나의 삶에도 원하던 결과 대신 다른 응답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4. 설교자는 "한 번 죄를 짓는다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회사에서 해고되는 등 나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장 나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한 방법이나 타협한 방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영역이 내 삶에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3. 더 깊이

1. 설교자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입다가 무남독녀인 딸을 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공동체에 더 큰 경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4. 삶의 적용

1. 이번 주, 기다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급해질 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라고 적으며 스스로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2.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 그 유혹 앞에서 "결과는 하나님께, 과정은 정직하게"라는 말을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되뇌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찾아볼 구절

1. 고린도후서 12:9 — 바울이 질병의 치유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된 기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2. 레위기 18:21 — 자녀를 죽여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밝힌 말씀으로, 입다의 서원 방식이 왜 그모스의 방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 시편 15:4 — 입다의 서원 이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되곤 하는 구절이지만, 설교는 이 본문이 서원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짚습니다.

4. 사사기 11:24 — 입다가 암몬왕에게 한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면 우리가 차지하리라"는 고백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과정은 우상의 방식을 택한 모순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설교에서 다룬 그모스는 원래 모압의 우상이고, 암몬의 주신은 밀곰 또는 몰렉이라 불렀는데, 당시 암몬과 모압이 서로의 신을 혼용해 섬기다 보니 입다가 그모스라 불렀을 것으로 봅니다. 두 신 모두 제사법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여 바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이번 주 실천

1.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 가족에게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2.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과를 서두르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동료나 친구에게 "이 방법이 바른지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하고, 다음 모임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함께 기도

-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도록
-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도록

마무리 기도

하나님, 결과에만 집착하며 과정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과를 위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믿게 하소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성품을 더 깊이 알아 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